



타이어 메이커별 기타 단신

미 · 쉐 · 린

● 타이어 6,500개 리콜

미쉐린 북미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6,500개의 Michelin Pilot Sport 타이어 리콜을 시작했다. 동사는 이 사실을 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과 캐나다 교통국에 알렸으며, 리콜 되는 규격은 255/35ZR20 97Y Extra Load이다. 리콜 요인은 사이드월 부분에 작은 이상이 있어 타이어에 떨림을 발생시켜, 공기압의 빠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컨트롤 저하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에서 본 타이어로 인한 어떤 사고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리콜되는 타이어가 미국에 판매되었고 캐나다에는 단지 약 400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Tire Business」, 06.1.2〉

● 멕시코에서 농경용 타이어 판매 추진

동사 북미지사는 멕시코에서의 Michelin과 BFGoodrich 브랜드의 농경용 래디알 타이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멕시코 전 지역의 선별된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될 것이다. 동사는 약 3년전에 멕시코에서 농경용 타이어 판매를 중지했었다. 동사 추정으로 멕시코의 농경용 타이어

교체용 시장 규모가 연간 40,000개 정도가 될 것이며, 이 중 래디알은 약 5%를 차지한다.

〈미국 「Tire Business」, 06.1.2〉

● 광산용 타이어 생산 확대

동사는 광산업에서의 증가하는 타이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동사의 Lexington earthmover 시설의 생산능력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8,500만\$ 규모이며, 2010년까지 대규모 광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70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새로운 장비추가를 포함한다.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직원들은 추가 장비가 라인에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번 신규 시설은 18~20개월 내에 추가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타이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6.1.9〉

● Waterville 공장 X One 트럭 타이어 생산 확대

06년 1월 말 미쉐린 북미지사는 캐나다 Nova Scotia 주 Waterville 공장에서의 X One 트럭 타이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Ontario 주 Kitchener BFGoodrich 타이어 제조 공장을 폐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최근

● BFS, Aiken County 공장 투자 계획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BFS)는 북미 South Carolina Aiken County 공장에서 5,000만개 타이어 제조를 기념하면서 이 공장에서의 사업 기반 향상을 위해 1,700만\$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에 동사는 Aiken County 공장에 네 번째 고무 혼합기를 설비하고, 다섯 개의 기존 타이어 제조기계를 개선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20인치 림 직경의 타이어 제조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올 10월에 완료되며, 전체 투자액은 약 4억 7,700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ken County 공장은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레디알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으며, 1999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현재 923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 「Tire Business」, 06.2.13〉

브 · 리 · 지 · 스 · 톤

● 중국에 합성고무 공장 설립 투자

브리지스톤사는 중국 광동성 Huizhou에 합성고무 공장 설립을 위하여 1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어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사는 밝혔다. 08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 이번 신규공장은 연간 약 50,000톤의 SBR 생산능력을 가질 것이며, 주로 중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있는 동사의 타이어 공장에 합성고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동사는 이 공장 운영을 위해 Bridgestone (Huizhou) Synthetic Rubber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미 미국 시장에 두개의 합성고무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브리지스톤사는 전략적으로 타이어와 여러 다각화된 고무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자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사는 여러 지역에 천연고무 농장과 가공공장 뿐만 아니라 스틸코드와 카본블랙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동사의 원재료 자체 제조 능력은 동사의 기술적 발전을 강화하고 또한 제품 다각화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재료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동의 공장으로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6.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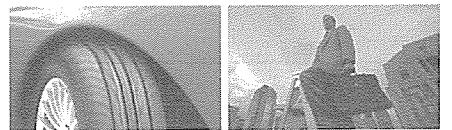
굿 · 이 · 어

● 인도 시장 사업 확대 투자

동사는 06년에 인도 시장에서의 사업운영을 위해 1,800만\$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투자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동사에 따르면, 승용차용 레디알 타이어 시장은 매년 20%정도의 엄청난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고 승용차용 튜브레스 레디알 시장도 35% 더 큰 증가세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는 동사가 가장 먼저 승용차용 튜브레스 레디알 타이어를 도입했으므로 이에 대한 유리한 점을 살리고 나아가 다음세대 하이테크 승용차용 타이어 제품에 포커스를 둔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오늘날 굿이어사에게 전략적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의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영국 「Tyres & Accessories」, 05. 12월호〉



● 호주 South Pacific Tyres 매입 예정

굿이어사는 합작기업인 South Pacific Tyres사의 지분에 있어 Ansell Ltd의 남아있는 4,000만\$의 50% 지분을 매입하고, Ansell사로부터 차입한 5,000만\$도 SPT사에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1월말 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SPT사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굿이어사의 이번 SPT사 매입은 호주와 뉴질랜드 두 지역에서의 동사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유동성 및 수익률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6.1.9〉

컨 · 티 · 넨 · 탈

● 말레이시아 공장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투자

콘티넨탈사는 말레이시아 Continental Sime Tyre International Sdn Bhd사 공장의 장비와 기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해 2,200만~2700만 프랑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어 생산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의 산업적 기반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동사는 또한 수출용 생산 비중을 현 25%에서 향후 2~3년에 걸쳐 증가시켜 50%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Continental Sime사의 51% 지분은 콘티넨탈사에 나머지 지분은 Sime Darby Bhd사가 가지고 있다.

〈영국 「Tyres & Accessories」, 05.12월호〉

● Hanover 공장,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중단 계획

콘티넨탈사는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에서의 예상치 못한 저조함 때문에 06.12.31일부로 본사 Hanover-Stocken 공장에서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사는 06년 말까지 Hanover 공장의 생산 직원수를 10% 즉 320명 정도를 감원할 계획이다. 동사에 따르면, 목표는 저비용 공장에서의 생산을 극대화하고 고비용 공장의 설비를 축소함으로써 승용차부문의

저조함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사는 매년 총 1억 500만개 이상의 승용차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승용차 타이어 제조 공장들은 연간 130만개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6.1.2월호〉

● 미국 Bryan 공장 매각 추진

콘티넨탈 북미지사는 특수타이어 제조사인 Denman Tire사의 모회사인 Pensler Capital사에 동사의 미국 오하이오 Bryan의 off-the-road 타이어 공장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한 법정 변호인에 따르면 동사는 Pensler사와 지난 몇 개월간 비공식적인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16일 그 매각건에 대한 가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동사의 Bryan 공장은 OTR 제조 공장으로 일간 245개까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190~2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고, 267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지난 수년 동안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시설 퇴출과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Bryan 공장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미국 「Tire Business」, 06.1.30〉

● 북미 Charlotte 공장 513명 감원

콘티넨탈 북미지사는 동사 Charlotte 공장의 일일 생산량을 절반인 12,000개로 줄이면서 향후 6개월간 공장 직원 513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감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3.15일에 241명이, 6월 30일에 272명이 해직될 것이며, 이 후에 공장은 남은 57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공장 타이어 생산량을 볼 때, 감원 첫 단계에서 생산량은 6,000개가 감소하여 18,000개가 될 것이며, 2단계에서 또 6,000개가 더 감소되어 약 12,000개가 될 것이다.

동사에 따르면 Charlotte 공장의 제조비용이 동사의 어떤 타이어 공장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축소 조치가 이루어지면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입지를 유지하면서도 재무상의 상당한 손실을 줄이려는 동사의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동사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시장 전략 모색이



나 제품 개발 및 연구에서의 적당한 투자 없이 감원만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 「Tire Business」, 06.1.16〉

● 미국 Mount Vernon 공장 설비 확대 투자

콘티넨탈 북미지사는 미국 Illinois주 Mount Vernon 공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6,000~7,000만\$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제조비용을 세계적 경쟁과 부합되도록 하는 운영상의 구조조정과 자금 운영 향상 등 복합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인데, 이를테면 다른 공장에서의 감원 – 상기 “북미 Charlotte 공장 513명 감원과 같은 – 및 임금 삭감 책 등의 희생으로 장래성 있는 Mount Vernon 공장의 시설 확대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미국 「Tire Business」 06.1.16〉

전체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3,000만\$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중국 Shanghai에 Yokohama Rubber(China) 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동사는 중국에서 01년 12월 승용차용 타이어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Hangzhou Yokohama Tire 사를 설립했고, 04년 2월에는 승용차용 sealant(방수제, 밀봉밀폐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Yokohama Hamatite (Hangzhou)사, 그리고 04.12월에는 고압호스 조립 및 판매를 위하여 Yokohama Hoses & Coupling (Hangzhou) 사를 설립하여 중국지역에는 3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설립되는 Yokohama Rubber (China)사는 중국에 있는 동사 지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동사는 회사간의 중복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판매 촉진 및 시장 활동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Tyres & Accessories」, 05. 12월호〉

스 · 미 · 토 · 모

● 중국에서의 타이어 생산시설 확대

스미토모사는 08년 말까지 중국 Changshu에서의 동사 공장에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시설을 4배까지 확대하고 또한 06년 중반까지 트럭?버스 랠디얼 타이어의 생산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Dunlop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동사는 이 프로젝트에 8,600만\$~1억 2,900만\$를 투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승용차용 타이어 월간 생산량을 1,450천톤에서 6,000천톤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Tire Business」 06.1.16〉

요 · 코 · 하 · 마

● 중국시장 운영 지휘할 지사 설립

요코하마사는 중국 주재 동사의 각 지사들의 판매 운영을

● 중국에 합작 기업 설립

요코하마사는 중국 남부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합작 기업으로 Yamasei Automotive (Foshan) Co. Ltd를 설립했다. 소요 자본금은 총 7,000만엔(50만 유로)으로, Toyoda Machine Works사, Yamasei Kogyo사 그리고 요코하마사가 각각 40:40:20으로 출자하였다.

이번 합작기업은 Toyoda Machine Works사가 04년 12월에 설립한 Toyoda-Koki Automotive사에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호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05년 12월에 개설된 Yamasei Automotive사는 19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며, Yamasei Kogyo사와 Toyoda Machine Works사는 이미 일본, 태국, 대만에서 power-steering hose를 제작하고 있으며, 합작 기업은 올해 4월부터 중국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고 중국 남부에서의 중대 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충족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요코하마사는 06년 1월에 중국 상동 Weifang시에



서동사 브랜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제조하기 위해 또 다른 협작 기업인 Shandong Yokohama Rubber Industrial Products사를 설립했다.

이 협작기업의 자본금은 970만\$로 동사가 51%,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컨베이어 벨트 제조사인 Shandong Yuema Rubber Belt Co. Ltd사가 출자 했다. 이 기업은 약 3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컨베이어 벨트의 높은 해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제조 시설을 확대한다는 동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06년 6월 이 협작기업은 요코하마 브랜드의 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 제조를 시작할 것이며 06년 후반기에는 직물 컨베이어 벨트 제조에 착수하게 된다.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6. 1·2월호〉

쿠 · 퍼

● 쿠퍼, 중국 Shandong Chengshan 타이어사

매수 완료

쿠퍼, 중국 Shandong Chengshan 타이어사 매수 완료
쿠퍼사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타이어 제조사인 Shandong Chengshan 타이어사의 약 7,000만\$ 상당 51%의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 회사 주(主) 변경은 06.2.4 일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 매입은 Shandong 공장과 인접해 있는 중국 Shandong, Rongchen 시의 스틸코드 공장의 25%지분을 포함한다.

동사에 따르면 Shandong Chengshan 타이어사는 05년에 5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향후 교체용, 신차용, 수출 시장용으로 랠리알 및 바이어스 상용차용 타이어 뿐만 아니라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랠리알 타이어를 계속해서 제조할 예정이다.

〈미국 「Tire Business」 06.1.30〉